

석유화학, 양안협력 피해 “우려”

상공회의소, 국내기업 45.6% 부정적 ... 섬유 49%에 반도체 52%

석유화학기업들의 50% 가량이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211곳, 중소기업 404곳을 설문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, 국내기업의 45.6%가 중국과 타이완이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(ECFA)이 발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.

ECFA가 국내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답변은 28.1%에 불과했으며 부정적인 응답비율은 대기업이 52.1%로, 중소기업(42.1%)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업종별로는 기계(55.6%), 반도체(52.4%), 섬유(48.8%), 석유화학(48.2%), 철강(46.9%), 조선(46.2%)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고 자동차는 33.3%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

경영에 부담을 주는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3.0%를 지정한 응답이 35.9%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.25% 이상, 2.5%, 2.75%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.

답기업의 47.0%는 연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고, 48.0%는 현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.

당면한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유·원자재 가격상승(33.7%), 환율불안(22.0%), 세계경기 둔화(13.8%)가 주로 꼽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8/10>